

의정부시

회룡무
·
정주당제
·



회룡무(會龍舞)

1. 전승지

의정부 호원동 회룡골

2. 유래 및 해설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골 회룡사는 원래는 법성사였는데,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 이

태조께서 아직 등극하시기 전 이곳에서 천일기도 후 “왕이 되어돌아 오셨다.”하여 지금의 “회룡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한다. 그 후 왕자의 난으로 세 방석이 죽자, 고향인 함흥으로 가 계셨을때, 태종 임금이 환궁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차사를 보냈으나, 차사는 죽음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다.(유명한 “함흥차사”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됨) 결국 무학왕사의 노력으로 이태조께서 이곳 의정



부까지 오시게 되어, 태종과 회룡골에서 만나 양 전하가 대좌하시게 된다. “전좌마을”이라는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회룡무는 이러한 전설, 혹은 야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일종의 마당놀이로, “회룡”의 의미는 “태조 임금과 태종 임금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한다. 즉 ‘회룡무’는 태조와 태종의 을 상징하는 청룡과 황룡의 갈등과 대립, 무학왕사를 상징하는 세 마리 학에 의한 화해와 화합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것은 결국 무학왕사의 노력에 의한 태상왕태조와 금상왕태종의 의정부에서의 역사적인 전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왕자의난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골육상쟁의 갈등을 풀고, 만남과 화합으로서 이조 500년의 위업을 이어 갈 수 있었던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6.25의 동족 상쟁으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염원과 통일에의 갈망을 담고 있다.

1) 청 룽

동양에서 용은 악과 재난으로부터 인간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상상의 영수(영험한 동물). 주로 영웅호걸의 상징물로 구체화된다.

특히 청룡은 왕(임금)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여덟 왕자가 왕위 쟁탈로 골육상쟁의(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방석이 죽자, 분노와 회한으로 정치의 뜻을 버리고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린 태조 이성계를 상징한다.

2) 황 룽

황룡은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을 상징한다. 그는 태조의 개국에 공이 컸으나, 태조가 계

비 강씨 소생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불만을 품고 세자와 그를 보필하는 정도전을 죽인다. 또 그는 정종이 2대 임금으로 즉위했을때, 방간의 난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고 드디어 정종으로 부터 양위를 받아 3대 임금으로 즉위하나 함흥으로 가버린 태조의 옥쇄를 양도 받지 못해, 함흥으로 수차례의 차사를 보내어 돌아오기를 권유하나, 가는 족족 차사는 죽임을 당하고 태조는 돌아오지 않는다.

3) 학

학은 동양에서 평화와 장수를 상징하는 영물. 특히 백의민족인 우리 민족을 상징하여 한때 “국조”로 거론된 바 있다. 여기서는 세 마리의 학이 등장하는데, “삼”이라는 숫자는 술발의 수, 즉 완전수로서 “안정과 화해”를 상징하며, 아울러 세 마리의 학은 조선 시대 문관 당상관이상 관복에 부착되던 쌍학 흉배의 두 마리 학보다 하나가 많은 것으로 왕사였던 무학대사를 상징한다. 그는 함흥에 가 있는 태조를 결국 지금의 의정부까지 오도록 설득을 하며, 두 임금-태조와 태종-의 화해와 화합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3. 구성 및 줄거리

■ 회룡무의 구성

- 제1장 : 농악에 맞춰 전개되는 청룡의 춤은 태상왕태조의 분노를 상징한다.
- 제2장 : 농악에 맞춰 전개되는 황룡의 춤은 금상왕태종의 야망과 분노를 상징한다.
- 제3장 : 청룡과 황룡, 그리고 세 마리 학

이 한데 어우러진 춤은 만남과 화합을 상징한다.

- 제4장 : 청룡, 황룡, 세 마리 학, 그리고 농악대의 행진은 민족의 통일에의 염원을 상징한다.

1) 제1장 여명(黎明)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두 마리 용의 힘차고 희망찬 춤의 마당

궁중음악(e)

음악에 맞추어 황룡의 주도하에 두 마리 용이 춤을 춘다.

상서로운 푸른 안개가 피어 오르는 가운데 비상을 준비하는 듯 두 마리 용의 춤은 잔잔하면서도 힘차고 힘차면서도 잔잔하다.

2) 제2장 갈등, 그리고 쟁투

갈등과 혼돈, 대립과 분노, 그리고 골육상쟁의 치절한 춤의 마당

궁중음악 사이로 갑작스런 천둥소리(e)

음악 그치면서 춤추던 용은 놀란듯 정신 없이, 다투듯 먼저 승천하려 하나 끝내 좌절.

지친듯 두 마리 용은 엎드려 웅크리면서 대치한다.

두 용의 눈이 서서히 붉어진다.

긴장감이 감도는 음악(e)

음악에 맞추어 두 마리 용 각기 반대 방향으로 마당을 돈다. 돌다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며 노력보다 다시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돈다.(반복)

다시 연속되는 천둥소리(e)

붉은 안개가 피어 오른다.

음악과 천둥소리 고조되면서 다시 마주친 두 마리 용, 포효하며 서로 엉켜 싸운다. 두 마리 용의 눈은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교차, 명멸하면

서 입에서는 불을 뿜는다. 엉켰다. 풀어지고, 풀어졌다 다시 엉키며 비틀리듯 뒤틀리듯 응숫음치는 치절한 싸움.

3) 제 3 장 무악(舞鶴)

세 마리학의 품과 맺음, 혹은 맺음과 품의 춤마당

마당에는 싸우다 지친 황룡과 청룡이 바짝 응크려 서로 노려보고 있다.

으르렁거리며 노려보는 두 마리 용의 눈은 여전히 붉게 활활 타오르고, 언젠 다시 불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사이)

부드러운 궁중음악(e)

음악에 맞춰 세 마리의 학 등장

학은 고고한 자세로 황룡과 청룡 사이를 오가면서 진무하듯 위무하듯 끌어당기듯 뺏어주듯 부드럽게 춤춘다. 흰 안개 피어 오른다.

어느듯 두 용의 눈은 원상태로 회복되고 웅크렸던 몸도 서서히 풀어진다.

두 용 사이를 오가며 춤추던 학은 다시 삼각형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춤을 반복한다.

이윽고 두 용은 몸을 일으켜 학의 울동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한다.

4) 제 4 장 회룡(會龍), 그리고 용비(雄飛)

황룡과 청룡, 세마리 학이 한데 어우러진, 모임과 화합의 신명난 춤마당

궁중음악 그치고 농악대 등장.

보랏빛 안개 속에서 농악대의 굿거리 장단에 맞춰 황룡과 청룡, 세 마리의 학,

기러기 농악대가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고 흐드러진 한 마당 춤판을 벌인다.

춤은 용의 승천하는 자세와 학의 비상하는 자세

로 끌냈는다.

오색풍선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른다.

※ 회룡(會龍)

태조임금과 태종임금이 회룡골 전좌마을에서 만나 화해를 함으로써 부자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함을 의미함.

회룡(回龍)

이 태조가 회룡사에서 수도 후 왕이 되어 다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정주당제

1. 전승지

의정부시 일대

2. 유 래

지금으로부터 삼백사십오년전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서는조선의 여인들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해 왔고 마침내는 왕족의 처녀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1650년 조선조 효종 원년에 청나라 구왕은 조선의 공주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청원을 해 왔다. 이에 조정에서는 평민의 처녀를 골라 보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훗날이 두려워서 임금님을 비롯한 대신 각료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때 종실의 금림군 이개균이



자기 딸을 청나라에 보낼 것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그녀를 의순공주라 칭하고 원두표, 신익전 등을 사신으로 또 시녀 열두명을 팔려 청나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딸을 청나라의 제물로 보내는 금림군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라에 충성하는 일편단심 그 하나 때문에 사사로운 가정의 평화만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의순공주도 이 길만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렇게 작별하고 의순공주가 집을 떠난지 며칠 뒤에 평안도 정주땅에 이르렀다. 정들었던 고향산천, 보고 싶은 부모형제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면 고국 땅과도 영영 이별이라 생각하니 눈물만이 하염없이 옷깃을 적셨다.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 나라의 구왕에게 아첨하며 욕되게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구나 생각한 의순공주는 가마를 멈추게 하고 가파른 벼랑으로 뛰어내려 물에 몸을 던져 정조를 지키려 하였다. 이에 수행하던 노복들이 시신이나마 거두려 하였지만 찾지 못하고 죽두리만 겨우 건져와서 금오동 선영의 아버지묘 밑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곳을 지금도 죽두리 산소라 부른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의순공주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큰당, 작은당, 각시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한편 의순공주의 어머니는 이곳 큰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저 멀리 북쪽의 정주땅만 바라보며 애통한듯, 실신한듯 딸을 찾았다 하여 그 이름을 “정주당”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때부터 정주당제는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겸 동제로 전승되어 왔는데 이른봄 화창한 날을 골라 마을 사람들은 비명에 간 왕족 여인의 넋을 위안하고 풍년과 무병 재수를 빌

며 고사를 지낸다음 놀이를 벌이면서 하루를 즐겼다. 재수는 백미로 지은 밥과 생미역만으로 끓인 국 뿐이었다. 제일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아침 일찍 당앞에 모여 제를 지내고 농기를 앞세워 팽과리, 날라리, 북, 장고, 징들을 가지고 농악을 연주하며 햇불을 들고 천보산 능선을 여러차례 왕복하였으며, 6.25 동란 이후당제만 지냈던 것이 1985년 부터 민속놀이로 재현되어 주민의 화합과 전통을 다지고 있다.

3. 구성 및 줄거리

1) 1장/배경설명

의순공주가 청으로 가게 된 배경설명 및 정주땅에서 투신 자살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의순공주 및 시녀 7명 등장, 의순공주 쪽두리, 의대 벗고 퇴장함.

2) 2장/제의식

(1) 영신굿(큰당)

제관 및 무녀가 등장하여 정주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여 큰당에서 의순공주를 맞이하는 영신굿을 한다.

영신굿에서 영신대에 감응이 오면 연신대로 받아서 정주당으로 내려온다.

(2) 정주당제(작은당)

의순공의 혼이 실린 영신대를 받아서 정주당 옆에 모셔두고 제관들은 제를 올린다.

(3) 산뺨기(지신뺨기)

정주당 옆에 산의 형태처럼 길게 그려서 농악의 장단에 맞춰 제관과 주민들이 산등성이

를 밟는다.

(4) 송신굿(각시당)한풀이춤

산밭기가 끝나면 의순공주의 넋을 보내는 송신굿을 한다.

4. 정주당제의 의의

1) 충

인조당시 양대호란을 거치면서 청과의 관계는 형제의관계에서 군신의 관계로 전락하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치욕의 항복을 했던 것이다.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조선공략의 선봉장이던 청나라 구왕이 조선의 종신녀를 얻어 결혼하겠다고 사신을 보냈다면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다. 인조가 그 일로 인해 걱정하자 종실인 금림군 이개윤은 스스로 자청해서 딸을 보내겠다고 하므로써 나라의 어려운 일을 이겨냈다. 사랑하는 딸을 오랑캐에게 주고 싶은 부모는 없지만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할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상황에서 오직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딸을 보내겠다는 금림군의 의지는 부모와 자식의 애끓는 정보다는 먼저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 때문이다. 의순공주를 청에 보내는 아픔을 댓가로 금림군은 가덕대부로 임명되었으나 결코 그 직분의 품계가 부모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으리라고 본다.

2) 호

역사를 통해 본 의순공주의 효를 들 수 있다. 원이나 명에 보낸 공녀들은 과부나 역적의 딸 그리고 천한 승려의 딸 등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들이었고 사대부의 종실은 한두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가기 싫은 복행 길을 아무런 거역도 하지 않고 자진해 나선 의순공주의 효성이야말로 심청이나 논개에 버금갈만한 효녀요 의녀라 말할 수 있다.

3) 대동화합

6.25전만 하여도 정주당제가 지내지는 날이 되면 마을 전체 주민이 산에 올라 하루를 함께 놀며 즐겼다고 마을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산등성이를 돌아 내려와도 함께 밤늦도록 놀았다고 한다. 민속놀이의 대개가 이 대동화합의 한 바탕 놀이에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킨 것이다. 이 정신은 우리 이웃을 감싸주고 함께 아파하며 이웃이 슬플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민족만이 지니는 정신이며 우월성이다.



